

극단 '죽도록달린다' 음악극
'상원: 지워지지 않는 기억'
28~29일 광산문화회관



극단 '죽도록달린다' 단원들의 모습.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나 영원히 패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엄군 진압 작전 하루 전인 1980년 5월 26일, 윤상원 열사가 외신기자들에게 전했던 목소리는 아직까지도 울림을 남긴다. 마치 역사의 승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듯 자신만만하게 느껴진다. 옛 전남도청 2층에서 산화하던 최후의 순간까지도 민주화의 기수(旗手)로, 시민군의 대변인으로 살았던 그의 행적은 오늘날 광주에도 귀감이 된다.

극단 '죽도록달린다'는 음악극 '상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오는 28일(오후 7시 30분), 29일(오후 2시, 6시) 3회에 걸쳐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연다. 이번 공연의 주인공은 평범했던 젊은이이자 오월, 신군부의 폭거에 맞서 싸웠던 시민군 고(故) 윤상원 열사.

극은 1950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3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청년 윤상원(원하성)의 평범한 일상을 먼저 보여줄 예정이다. 주택은행에 취직한 뒤 서울 봉천동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청년의 초상은 우리네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선후배들이 하나둘씩 수배자가 돼 자취방으

로 도망쳐 오는 모습을 보며 윤상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다. 사명감을 느낀 그는 곧장 사직서를 제출한 뒤 광주로 내려온다.

이어 윤상원은 오월 광주에서 박기순(김혜인)의 제안으로 들불야학 강단에 오른다. 다양한 노동자들에게 저항인론 '투사회보'를 만들어 5·18 민주항쟁의 진실을 전하는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등, 민주화운동의 일선에서 '항변의 목소리'가 되어 왔다.

아직도 현재진행형 '인간 윤상원' 이야기



음악극 '상원'의 공연 장면.

<죽도록달린다 제공>

역사 속 사실처럼 1980년 전두환은 광주로 탱크와 헬리콥터를 보낸다. 윤상원은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전남도청 민원실로 걸어 들어가 끝까지 신군부의 압제에 저항한다는 내용의 시놉시스를 갖고 있다.

한편 연출에 서재형이 나섰다. 작사에 한아름, 작곡에 2019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한 황호준이 동참했다. 김상윤 역에 오찬우, 김영철(이천영),

박용준(김재형), 박관현(이은석) 등이 무대에 올라 연기를 펼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음악극'을 표방하는 만큼, 5·18에 얽힌 다양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익숙한 노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는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가 영혼 결혼식을 올리며 영령들의 넋을 기린 헌정곡이기도 하다. 이날 공연장에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등의 노랫말을 감상하는 묘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작품이 시의적인 이유는 윤상원 열사에 대한 아픔이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5일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신봄메)는 윤상원 열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투사들의 유족과 당사자들이 신군부의 폭압 아래 겪었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에, 이번 공연이 광주민주항쟁의 아픔을 잠시나마 승화시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서재형 연출가는 "코로나19로 인해 랜선 공연으로 만나던 뒤, 3년만에 광주에 찾아오게 됐다"며 "고(故) 윤상원 열사의 고향인 광산구에서 진행되는 공연이기에 더 뜻깊다. 우수한 배우들과 스태프가 최선을 다해 '인간 윤상원'의 이야기를 담았으니, 열사들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석 1만4000원, S석 8000원. 문의 광산구 문화예술과.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축제에서 만나는 예술

정남진 장흥 물축제 연계 미술전시회 29일~8월 6일

장흥은 문향(文鄕)이자 산자수명의 고장이다. 천관산을 비롯한 명산과 강진만으로 흐르는 탐진강이 있다. 유서 깊은 사찰 보림사, 동학 정진이 깃든 역사, 백자 도요지 등 유구한 역사와 수려한 문화를 자랑한다.

올해도 여름 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 (29일~8월 6일)가 열리며 이와 연계한 '장흥물축제 미술전시회'도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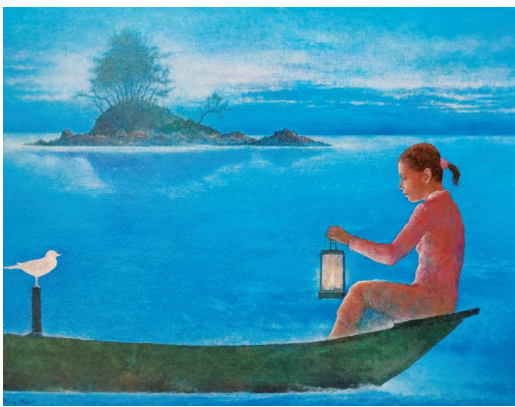
갤러리내일은 올해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간에 미술전시회도 열린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이번 물축제는 단순한 유희를 넘어 문화축제를 상징함으로써 평소 미술 작품을 보기 힘들었던 이들에게 의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술과 생태학의 만남'전을 주제로 탐진강 일대는 설치 작품이, 장흥문화회관에는 조각과 회화가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회에는 서울과 지방에 거주하는 작가 39명이 참여한다. 또한 조각가 5명이 17점을 출품하는 등 다채로운 작품이 관객들을 맞는다.

참여작가로는 고성희, 권시숙, 권신애, 김선두, 김원근, 김정옥, 류지선, 박성실, 박성환, 박항률, 서길현, 선우환, 양대근, 우창훈, 이도, 이미연, 이



박항률 작 '저 너머에'

상구, 조수경, 조은주, 허진 등이다.

참여 작가들은 그동안 서울과 여러 지역에서 자신만의 시각으로 창작활동을 펼치며 세상과 소통해 왔다.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부채만들기, 점토 만들기, 드로잉 그리기 등도 마련돼 있다. (드로잉 그리기는 전시 마지막 날 시상식을 통해 시상할 예정이다)

탐진강 야외에서는 김호준 작가(29일 오후 2~4시, 8월 1일 오후 1~4시, 2일 오후 1~4시), 조수경



허진 작 '유목동물+인간-문명2022-10'

작가(29일 오후 3~5시)가 캐리커처 그려주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우환 작가가 프레스코 기법을 활용해 구현한 아테네학당 앞 포도존도 눈길을 끈다.

한편 박수현 갤러리내일 관장은 "이번 미술전시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인 장흥 물축제와 연계한 행사"라며 "축제의 공간에서 물과 함께 미술계의 유망한 작가들의 전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일빌딩245, '청년예술기획창고'

27일까지 접수

전일빌딩245는 문화예술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청년예술기획창고'의 참가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 문화기획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건물, 도심 등을 활용하는 문화예술기획 이론강의부터 실무과정까지 마련돼 있다.

강사로는 김꽃비 독립문화기획자가 오를 예정. 김씨는 그동안 청년문화허브 운영위원, 유튜브 10년후그라운드팀 팀장을 역임했으며 오월길문화기획단 달 comm 등의 행사를 기획한 바 있다.

총 8명의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을 선정해 다음달 9일부터 30일까지 4회에 걸쳐 멘토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차시에 문화기획 기초이론을 공부한 뒤, 2차시에 심화강의를 통해 '좋은 기획

과 나쁜 기획'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후 3차시부터는 조별 기획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발표한다. 끝으로 9월 2일에 참가자들이 기획한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모니터링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한편 출석률 80% 이상을 달성하면 수료증을 발급(교육생 요청시)해주는 교육 특전도 제공한다. 수강료 무료. 구급 품 접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참가신청하세요

광주독립영화관, '나도 영화기획자'

31일까지 접수

"독립영화관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상영한다!"

광주독립영화관(관장 한재섭)은 '나도 영화기획자'라는 의미의 '나.영.기'의 참가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독립영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된 인원은 직접 '영화 프로그램'이 되어 상영 작품을 고를 수 있으며, 게스트 초청, 관객과의 토크쇼 등을 주도할 수 있다.

또 심포지엄이나 글쓰기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 활동도 기획할 수 있다.

영화를 통해 관심사를 공유하려는 시민이나 특별한 행사, 단체를 홍보하려는 개인(또는 소모임, 동호회, 학회 등의 단체)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광주영화영상인연대와 광주독립영화관이 주최하며 광주시, 영화진흥위원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한다.

총 2~3팀을 선정할 계획이며 다음달 15일에 선정자 개별 통보. 신청 방법은 영화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링크 참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초록 머금은 월출산...지친 심신을 위로하다

최종석 개인전, 26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초록의 자연색을 흠뻑 머금은 월출산이 정마와 무더위로 지친 심신을 위로해주는 것 같다. 구정봉 하늘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잔잔하면서도 아늑하다. 월출산의 기묘한 바위가 뽀얀 위용은 오간 데 없이 유순한 산아가 펼쳐져 있다.

월출산을 소재로 작업을 하고 있는 최종석 작

가가 오는 26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1, 2관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정년퇴직 후, 작가가 인생 2막을 그림에 매진하며 작업했던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월출산은 영암이 고향인 작가에게 남다른 산으로 어린 시절을 떠돌리게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작가의 기억에는 친구들과 골짜기를 누비며 추억을 쌓았던 월출산의 다양한 풍경이 드리워져 있다.

작품은 월출산 제일봉인 천황봉과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향로봉, 사자봉, 장군봉, 그리고 미국의 케논산맥의 큰 바위 얼굴보다 더 훌륭하다는 큰바위 얼굴, 아홉개 웅덩이가 있는 구정봉 등을 캔버스에 옮겨 놓은 것들이다. 작품을 한데 모아 저만치 떨어져 바라보면 마치 산 꼭대기에서 경관을 감상하는 듯한 황홀경에 빠진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월출산이 뽀



'구정봉 하늘샘'

내는 매력에 감화돼 당장이라도 그곳에 가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다.

최 작가는 "이번 전시는 남도의 명산인 월출산의 다채로운 풍경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는 자리"라며 "산속에서 힐링하듯 조목한 자연을 감상하고 월출산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용치골의 가을'